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통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질병·바이오산업 동시

### K-푸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 강화·산업화 기반 마련 도약 다짐  
함께 진행된 심포지엄서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연구  
글로벌 식품산업 성공 위해 필수”... 기반구축 필요성 논의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이 21일 열렸다. 국가핵심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 및 심포지엄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등 산학병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체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 간의 건강인자 관계를 규명하고 개인별, 질환별 맞춤형 치료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범했다. 박병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과 최장이 돼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식이-장내미생물 임상연구 중요성에(전북대병원 이승욱 교수), 개인맞춤 식품-대사마이크로바이옴 상호 연관관계(호서대 박선민 교수), 바이오빅데이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주원GS 박준형 대표)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종합토론 자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연구는 향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채수완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으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의료산

업을 융합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유일 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수행한 320여 건의 식품임상시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연계해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바이오식품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기념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전북대학교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하며, 전북대학교 연구진들도 심도 있는 연구와 산학연관 협력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관영 도지사의 축하 대목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은 국가 신성장과 고용효과, 인류 건강 등 그 효용성이 크며 융·복합 산업으로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확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농생명 바이오 식품산업의 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에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이 21일 열린 가운데,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학교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 주관기관 선정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 도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 통해  
전시부스·참관단 운영 등 유사 경험 바탕으로 사업 추진키로

전북도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 교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은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탄소 및 수소 용

합산업의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다수의 회원사(100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부스 및 참관단 운영 등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은 국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

단 운영,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제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연계협력 및 교류확대를 추진한다. 이지형 전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으로 국내 탄소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 사업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4·5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내일부터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오늘까지 철거해야

오는 28일 전주를 국회의원 등을 뽑는 4월 5일 재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 오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알리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찌든 위트, 표창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장장치 또는 휴대용 확장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장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

할 수도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다.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창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포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안된다.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선거운동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보궐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22일까지 철거해야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젊은 소리꾼 모여라”... 전주소리축제 다섯바탕 출연자 공모

내달 10~24일 3명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젊은 관소리 다섯바탕’ 무대에 오를 소리꾼을 오는 4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젊은 관소리 다섯바탕’은 실력 있는 젊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차세대 소리꾼들에게 무대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지역은 1987년부터 2004년생까지

60분 이상 소리가 가능한 소리꾼으로, 올해 소리축제 기간(9월 15~24일) 중에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 인원은 총 3명을 모집한다. 공연은 해설과 릴레이 관소리 형태로 진행되며,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소리 대목에 대한 간략한 해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며, 참가신청서 및 프로필 사진 등 서류와 함께 최소 15분 이상 30분 이내로 녹음된 소리 음원 파일을 소리축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클라우드 주소는 4월 10일 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3명의 관소리 전문가의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5월 4일 발표된다. /뉴스시스